

무안군, 양파 기계정식으로 “인력난 걱정 없어요”



청계면 구로리 일대 중심 본격 시작 올해 목표 421ha...생산비 절감 핵심

무안군은 10월 중순부터 청계면 구로리 일대를 중심으로 조생종 양파 정식이 이뤄지고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파 기계정식이 10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전국 최고의 양파 주산지로서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2012년부터 균정 역점사업으로 양파

기계정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파 수확이 빠른 조생종을 중심으로 정식이 시작되면서 현재 농가에서는 막바지 육묘 관리에 여념이 없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바쁜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하여 적기에 양파정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인건비로 인한 농민들의 이종고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기계정식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양파 기계정식 목표는 421ha로써 기계정식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현지 확인을 통해 신규 농가는 10a당 21만 원, 계속 기계정식을 이행한 농가는 10a당 95000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양파 농사에 있어 인건비 등 영농비용 절감은 절실한 문제이며 사람손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양파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수료식 개최

영광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영광군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수료자 18명이 참석하여 수료식을 가졌다.
전문교육기관인 사회적경제동조협 지역혁신경제연대에 위탁하여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는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고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례공유, 비즈니스모델 수립, 멘토링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수료생은 “비대면 교육은 처음이라 걱정이 되었지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여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수강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노하우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만족을 표했다.
김준성 군수는 “공동체로 구성된 마을기업이 건강하게 운영되어 전국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봤다.”며 “우리 군에도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마을기업이 있으니 이런 기업들과 군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나혼자 걷기’챌린지 운영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인 ‘나혼자 걷기’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두 번에 걸쳐 진행하며 1회차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회차는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회차별로 21일 동안 진행된다.

참여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앱 ‘위크온’을 설치하고 목포시 공식 커뮤니티에 회원가입한 후 챌린지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만보씩 총 15만보를 달성하면 된다.
시는 챌린지 기간 동안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 회차별로 선착순 300명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수협, 송공 위판장 첫 삽

“신안군수협 위판도 2천억 시대 기반 마련”



신안군 수협은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개발지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및 유관기관 단체장, 관계자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착공식을 가졌다.
송공 위판장은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081㎡규모의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해당 건물 1층은 활어, 낙지 등 위판장, 2층은 관람로를 마련하여 천사대교 개통으로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싱싱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송공 위판장 준공으로 신안 갯벌 낙지와 활어, 물길, 주변 지역 어선의 위판 유치로 위판도 2,000억원 달성하는 등 지역내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은 김·왕새우·개체굴 학교운영, 청년어선 임대사업 추진 등 각종 청년어업인 육성시책 등 적극적인 투자로 2019년도 전국 2번째로 귀어인이 많은 지역으로 신안군이 발표되는 등 해양수산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내 소득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수해피해 함평엑스포공원 ‘전화위복’

김영록 전남지사, 도비 10억원 ‘통근’ 지원



함평엑스포공원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해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 큰 지원에 나서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았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이상의 함평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도비 10억 원을 함평엑스포공원 복구에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함평군은 피해 복구비(군비 27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특별 지원은 이 군수가 지난 호우피해 관련 지역 복구계획을 설명

하며 엑스포공원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당초 예정돼 있던 국비지원이 모두 군 자체력부족으로 변경된 점을 적극 고려하면서 김 지사의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은 민간 시설 복구에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원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지사께서 군과 군민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은 앞으로 이번에 지원받은 도비와 기존에 확보한 국비 150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등 총 271억 원의 복구사업비를 투입, 엑스포공원을 포함해 수해 피해 지역 전반을 완전 복구할 방침이다.
특히 엑스포공원 부대시설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문화유물전시관의 경우에는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1m 가량을 송상하는 방식으로 내년 초 신축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하반기(2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30일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영암군은 10월 3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2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일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며, 전일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영광군은 22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경품 추첨을 했다.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감사팀장의 입회하에 전국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117명을 추첨했다.
당첨 순위별로 1등 70,000원(15명), 2등 50,000원(36명), 3등 30,000원(66명)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11월 중에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